

2022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- 예술생태랩  
사업설명회 주요 질의 응답

**Q. 신청자 본인의 활동지(거주 또는 창작활동)가 꼭 사업범위(당산1동-영등포동-문래동)와 일치해야 하나요?**

아닙니다. 신청자격은 사업범위(당산1동-영등포동-문래동)와는 별개로 영등포구 소재 거주지 또는 작업실을 보유하거나, 3년 이내 영등포구 내에서 1회 이상 예술활동에 참여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다만, 본 사업에서 기획하시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범위 또는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사업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**Q. 프로그램 운영 시, 사업범위 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**

가능합니다. 예술생태랩 사업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향합니다.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영등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과 그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**Q. (예산 항목 중) 인건비와 사례비의 구분이 헷갈립니다. 어떠한 경우가 사례비에 해당하나요?**

인건비는 본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기획/운영하는 프로젝트 매니저(PM)에게 지급하는 항목입니다. PM은 본 사업의 주요 참여자로서 신청서 상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반면 사례비는 워크숍, 강연, 공연 등에 참여하는 강사, 진행자, 실연자 등 세부 프로그램에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항목입니다.

참고로, 인건비와 사례비 모두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.

**Q. 공연을 진행할 경우 제작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**

예산 항목 중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시면 됩니다. 행사운영비란, 행사를 운영/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주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항목입니다.

**Q. 예술가가 모여 작업실을 공유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런 내용으로 지원할 경우 창작공간 안정화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?**

그렇습니다. 다만, 프로그램의 의미나 가치를 더욱 널리 매개할 수 있도록 작업실 구성원 뿐 아니라 외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. 또한, 다른 유사한 활동이나 공간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

**Q. 사업범위(당산1동-영등포동-문래동)에서 구역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는지요?**

아닙니다. 심사 진행 시 지역을 구분지어서 심사하지 않습니다. 지역은 참여대상을 구분하는 역할이지, 심사와는 별개입니다.